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壬亂以前 時期를 中心으로—

檀國大學校 民俗博物館
연구관 朴 聖 實

目 次	
I. 研究 目的	1. 斂襲 制度
II. 研究方法 및 範圍	2. 隨殿 都監儀軌의 斂襲衣嚮
III. 研究 内容	3. 壬亂前 出土 服飾 構造
	IV. 結 論

I. 研究 目的

本研究는 壬辰倭亂 勃發(1592년) 以前 卒한 墓主의 出土服飾을 통하여 朝鮮前期 服飾構造를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出土服飾은 先祖의 墳墓 移葬時 棺內에서 발견되는 복식류로서 이는 墳墓의 여전에 따라 부식되지 않은 복식들이 당시의 葬俗(斂襲制度)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써 거의 대부분이 미이라화된 시신과 함께 출토된 것이며死者를 위해 새로 마련된 新衣 즉 壽衣(襚衣)와 關大한 棺內部를 채우기 위한 補空品으로 사용된 平時服으로 大別되고 있다.

본인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여러 분묘에서 출토된 수백점의 실물을 복원 정리하는 과정에 거의 대부분이 墓主의 생전 平時服으로 되어 있었으며 壬亂을 고비로 복식의 양상이 변화되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出土服飾中에는 동정과 암컷 고대 부분에 때가 남아 있거나 부분적으로 해진 곳이 확인되고 있고 긴 부분을 접어서 줄여놓은 상태 그대로 발견된 경우도 있다.

또한 정교한 바느질과 화려한 비단으로 만들어진 4계절의 복식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어 死後 3~5日에 행하여지는 大斂(入棺)時까지 새로 준비한 수의가 아님은 분명한 사실이다. 수의는 인체에 직접 닿아 있어 분비물에 의한 오염이 가장 심하여 서로 밀착되어 있으므로 분리가 곤란하고 간혹 수습된다 하여도 세탁 등 처리과정에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아 출토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棺內의 복식이라하여 통칭 壽衣로 이해하거나 옷의 크기 또는 오염 정도를 감안하여 壽衣로 구분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 외에도 발굴자체가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습된 유물이 한곳에 모아지는 과정에서 男·女복식이 섞여져 있어 남·여 공용인 경우에 구분이 애매하고 더욱이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복식을 넣어 주는 葬俗을 고려치 않고 墓主의 복식으로 발표된 사례가 있어 혼동되고 있으며 무연고 분묘의 경우 복식 형태로 내내주정을 함에 있어 出土量이 全量이 아닌 극히 일부의 자료만을 가지고 시대를 구분하여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동일한 복식에 연구자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으로 命名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통 葬俗 특히 斂襲制度의 문학적 연구가 미비하고 出土服飾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비교연구가 아닌 분묘별보고서 양식으로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며 현전하는 복식자료 대부분이 19세기 전후의 유물들임을 감안할 때 실로 귀중한 유물사료임에도 불구하고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의 문제들을 분석하여 복식 실물자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므로써 정확하고 중을 밝혀 놓는데에 목적이 있으며 壬亂前 出土服飾들은 高麗末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이 부분적

으로 확인된 반면 壬亂後의 경우는 복식의 양상이 변화되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壬亂前 出土服飾으로 시대를 한정하였다.

II. 研究方法 및 範圍

本研究는 壬亂前 出土服飾 實物史料를 제1차 자료로, 동시대의 문헌을 제2차 자료로 하였으며 1차 자료는 1991년 12월까지 발표된 자료중에서 墓主의 卒年이 壬亂前으로 확실한 경우를 우선대상으로 하였으며 추정된 경우를 포함하였다. 出土服飾으로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것은 총 13件에

이르나 壬亂前 유물은 제15호인 李洞夫人(?~1583년)의 경우뿐으로 보존상태가 불량하다. 따라서 실물고찰이 가능한 단국대 민속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다음의 6例를 대상으로 하였다. 추정년대는 소장처의 발표를 인용한 것이며 壬亂中卒한 1件의 경우를 비교용으로 포함하였다. 총 9인(男5, 女4)의 出土服飾 종류는 團領帖裏 褐襪(半袖直領形) 直領長衣腋注音 저고리류 胡袖(方領上衣形) 背巨里(등기리형) 치마 褥(女) 등이며 이 가운데 이중으로 표기된 복식명칭은 본인이 명명한 것으로 총 113점의 분묘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壬亂前出土服飾의 墳墓內容

내용 차례	墓主名	연대	분묘형태	성별	소장처
1	丁應斗墓出土服飾	男 1508~1572 女 1509~1580	合葬	男, 女	檀大民俗博物館
2	碧珍李氏墓出土服飾	?~1585	單葬	男	慶北大博物館
3	李彥雄娶子婦墓出土服飾 重要民俗資料 第114號	중종~선조추정	單葬	男 1 女 1	檀大民俗博物館
4	洪係江墓出土服飾	1400~1450	合葬	男, 女	檀大民俗博物館
5	楊川許氏墓出土服飾	1450年代 추정	單葬	女	檀大民俗博物館
6	金涵墓出土服飾 重要民俗資料 第209號	1568~1598	單葬	男	檀大民俗博物館

이상의 실물자료를 분묘별로 나누어 출토현황
墓主의 인적사항 복식종류 형태 재료 재봉방법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를 종합 분석한 후 임란
후의 양식과 비교하였으며 高麗末 朝初의 유물과
연계하여 공통점을 찾아 조선전기의 복식구조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斂襲制度의 고찰을 위해 《國朝五禮儀》 《喪禮備要》 등 壬亂前 문헌과 《歷代 殯殿都監儀軌》 《國朝喪禮補編》 《四禮便覽》 등 후기의 문헌을 보충하였으며 재봉법 고찰은 최초의 재봉서인 《朝鮮裁縫全書》를 인용하였다.

III. 研究內容

1. 斂襲制度

太祖元年 即位教書에 冠婚喪祭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상정토록 지시하였는데 이는 儒教를 治國의 이념으로 삼아 왕실의 권위와 명분을 구실로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써 高麗末 유입된 朱子家禮를 근본으로 하였다.

國朝五禮儀는 朝鮮朝 모든 儀禮에 기본이 되었으며 이중에서도 凶禮는 가장 비중있게 다루었으며 英祖朝에는 2次에 걸쳐 國喪만을 다룬 國朝喪禮補編을 편찬하였다.

襲 小斂 大斂 등 斂襲方法 및 의식절차는 王室과 民庶가 유사하였으며 斂襲衣와 諸具에 차등을 두었다.

墳墓別 出土服飾 종류 및 수량

구분	羅州丁氏 應斗	碧珍李氏 應江	金海金氏 涵	南陽洪氏 係江	廣州李氏 彥雄	楊川許氏 女墳	계
분묘 형태	合葬	男墳	男墳	合葬	男墳 女墳	女墳	
團領	1	1		2	1		5
褡襪 (半袖直領形)	6			2			8
帖裏	11			5	1		17
直領	1	1		1	1		4
腰注音	1	4		2	3		10
長衣			3	1	4	3	11
胡袖 (方領上衣形)	1	1					2
저고리류	14		2	3	15	5	39
背巨璽	1						1
치마	1			4	3	1	9
袴(女)	1	2	1	3			7
계	38	9	6	23	28	9	113

사신에 옷을 입히는 것을 襲이라 하였으며 따라
서 襲衣는 死者에게 입히는 屍衣로 고대에는 襲衣
된자는 壽衣라 하였고 豉衣로 보낸다는 의미로
襚衣 新衣로 갈아 입한다는 의미로 更衣라고도
하였다. 襲衣의 기록이 상세한 것은 새로 만든 수의
인기 때문이며 모두 右衽으로 하였다. 稱에 대한
시론이 분분하였으나 團領, 帖裏, 褒襪등의 表衣를
1칭으로 하였는데 규정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小斂衣는 表衣만을 기록하고 散衣, 斂衣, 雜衣
19稱으로 하여 天數九, 地數十의 의미로 上·下가
동일하였으나 實行 여부는 분명치 않다. 小斂時
“左衽不紐”는 학자의 해석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였
는데 平時服을 여러겹으로 입하는 경우 정상적인
착장방법이 곤란하게 되므로써 左衽으로 하여 고름
을 매지 않도록 한 실용적인 방법으로 해석되었으
나 출토 실물중에는 上服用(表衣)인 평시용 團領에
고름을 고의로 떼어낸 흔적이 발견되기도 하고
수의의 옷깃을 생존시와 반대로 바느질한 경우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전통 수의의 재봉법으
로 이어져 오고 있다.

小斂紋는 九條로 하였는데 왕실은 白綃를 民庶는
細布로 하였으며 大斂時 結綾하였는데 이는 대신

소생하기를 바라는 효자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上·下倒衣는 祭服不倒의 원칙에서 비롯된 것으로
왕실 小斂時 사용되는 絲紗袍의 경우 衣는 上倒
衣로 裳은 下倒衣로 사용되었으나 민간에서는 上部
(옷깃부분)를 다리쪽으로 거꾸로 놓지 않는 방법으
로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大斂衣는 上服을 제외한 대부분의 복식이 補空用
으로 사용되었으며 규정과 무관하게 실행되었다.
宣祖妃 2王后의 경우 129칭이 사용되어 天子의
120칭 보다도 많은 양의 복식이 사용되었는데 平時
의대가 아닌 服玩제도를 따라 小形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王妃는 本朝命服이라 하여 長衫을
사용하여 中朝翟衣와 구분한 것을 보면 자주적인
정책의 일면을 알 수 있었다.

喪禮備要에는 入棺後 의복을 너무 많이 넣어
뚜껑을 덮기 위해 長木을 사용하여 노비들로 밟게
하는 것은 예가 지나침임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
世俗의 유풍을 짐작할 수 있으나出土된 예는 墓主
한사람(男)의 경우 60여점 정도가 일반적이며 여기
에 수의는 제외되었고 배우자의 복식이 포함된
것이다.

배우자의 복식이 補空品으로 사용된다는 기록은

王室 및 民庶의 敘襲衣 비교

冊名 성별 영수의	國朝五禮儀(1474)		國朝五禮儀(1474)		喪禮備要(1583)		四禮便覽(1844)	
	王	王妃	男	女	男	女	男	女
襲 衣	大帶 袞龍袍 褡襪 帖裏 羅圓領 褡襪 帖裏 紅紺絲圓領 褡襪 帖裏 白綃裏肚 白綃汗衫 白綃袴 白綃襪 襲衣 9稱	大帶 長衫 衣裳 汗衫	大帶 黑圓領 褡襪 帖裏 裏肚 汗衫 袴 襪 襲衣 5稱 (五品 이상)		大帶 幅巾 深衣 (圓領直領衣) 褡襪 袍襖 汗衫 裏肚 袴 單袴 靿帛 襪 履	圓衫 (蒙頭衣) (長襪子) 袍襖 裳 袍襖 汗衫(的衫) (中致莫) 汗衫(的衫) 袴 單袴 靿帛 襪 履	幅巾 帶 深衣 (制同男子) 綠衣·圓衫類 長襪子(長衣) 袍襖 衫子 小衫 裏肚 袴 裳 袴 單袴 襪 彩鞋	帶 深衣(制同男子) 綠衣·圓衫類 長襪子(長衣) 袍襖 衫子 小衫 裏肚 袴 裳 袴 單袴 襪 彩鞋
	絳紗袍一襲 散衣(復衣復衾) 斂衣 19稱		圓領 散衣 斂衣 19稱		上衣 (團領·直領類) 散衣 (雜衣 袍襖類)		上衣 (深衣 團領類) 散衣 (袍襖·雜衣· 袴類)	祿衣 圓衫類
	冕服一襲 散衣(拾衣拾衾) 斂衣 90稱	本朝命服	圓領 散衣 斂衣 30稱		上衣 (同小斂條) 散衣		散衣(同小斂條)	

민전도감의궤 중 宣祖妃懿仁王后의 道袍 添里, 仁祖의 唐衣에서 찾을 수 있었으나 출토된 경우는 여러간 확인되었다.

大斂絞의 재료는 小斂絞와 같고 5條로 하였는데 結絞 방법은 규정대로 시행되었음이 出土실례로 확인되었다.

2. 殯殿都監儀軌의 敘襲衣

殉殿都監儀軌는 國喪時 마련되는 國葬 山陵 등 3都監의 일종으로 斂襲 成殯 成服 등의 일을 관장한 도감청의 기록이다. 따라서 이것은 王室의 斂襲制度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현재 王·王世子 16件(16씨45~1863년)과 王妃·王世子嬪 22件(1600~1904)이 전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仁祖(1649년) 文孝世子(1786년) 宣祖妃懿仁王后(1600년) 繼妃 仁穆王后(1632년) 儀軌는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殯殿都監儀軌는 嘉禮都監儀軌와 달리 주인공의 평생 복식구조를 알 수 있었다.

宣祖妃인 두 王妃의 斂襲衣를 보면 內備(內用) 外備로 나뉘어 있으며 衣次의 기록이 있는 外備用 長衣 赤古里 赤尙 등은 平時用에 비해 小形이며 衣色이 다채롭고 안감이 모두 白色인 점에 차이를 둔 補空用 특수복식이었고 반대로 內備用은 平時服임을 알 수 있었다. 懿仁王后 232件 仁穆王后 284件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 규정과 달리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歷代 殯殿都監儀軌는 前半部 儀註와 後半部 實行

구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儀註는 國朝五禮儀凶禮와 동일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儀註 내용 중 敗襲衣衛 부분을 오해하여 王의 복식을 王妃의 것으로 섞어 놓은 의례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참고한 後代의 의례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 儀軌 참고시 주의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다행히 본 의례는 實行 부분인 三房의례의 기록으로 재확인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실례는 嘉禮都監儀軌中 胡袖串衣에서도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腋注音은 王亂을 고비로 사라진 服制임에도 불구하고 국발까지 기록된 사실에 의문점이 제기되었다.

① 袍類에는 長衫의 衣露衣長衣添里道袍 등이 있으며 長衫은 翟衣에 대응하는 本朝命服으로 착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衣 또한 長衫制에 雀胸背를 딸아서 命名한 것으로 보았으며 長衣의 수량이 많아 便服袍로 착용되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出土服飾에도 다양으로 발견되어 民庶와 같은 제도임을 알 수 있으며 添里道袍는 配位(宣祖)服飾으로 補空用으로 생각되며 出土服飾에도 같은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전통 葬俗으로 확인되었다.

② 上衣類에는 長唐衣 小串衣 唐串衣 肩尗只 小肩尗只 腋尗只 赤古里 小赤古里 長赤古里 回粧赤古里 赤衫 小赤衫 長汗衫 唐汗衫 長古衣 背巨里 등으로 다양한 명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것은 禮服用을 제외한 便服袍類가 長衣 한 종류인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반대로 男子는 袍類가 다양함에 비추어 上衣類가 단순하게 되어 있음이 주목되었다.

이 가운데 長唐衣 小串衣 腋尗只(肩尗只) 등은 모두 內備用으로써 青·白 3件 외에 모두 草綠과 紫色이며 內備用 赤古里도 동일하다. 또한 小赤古里 赤衫등의 內備用도 草綠色으로써 모든 上衣類가 草綠 紫色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唐衣는 長唐衣라 표기되어 있고 모두 초록색이며 그 중 한건에 胸背를 加하고 있고 赤古里와 구분된 것 등으로 보아 수입 四段으로 만들어진 長赤古里 형태를 지칭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것은 燕行錄中 唐女가 唐衣를 입었다는 기록이나 本國制와 구별하는데 “唐”字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으로 보았다.(唐絲 唐樂 등) “唐”字가 수식된 唐汗衫 唐串衣에도 胸背 부착 기록이 있으므로 唐衣形으로 추정하였다. 이외에도 唐衣는 唐赤古里

唐古衣 唐衣服 등 다양하게 지칭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上衣類中 表衣로 입혀진 소례복용인 것은 後代와 같으나 모든 赤古里가 唐衣를 지칭하는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小串衣는 衣料中 青金線이 포함되어 있을뿐 아니라 唐衣보다 衣色 衣料가 다양하며 누비 小串衣까지 있어 당시 보편화 되었던 服制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嘉禮時 短赤古里로써 후대의 회장저고리 형으로 추정되며 國初 小襖子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好袖(胡袖) 小襖子와 구별하였는데 胡袖는 宋代 豪袖(鶴袖)의 유습으로 對衿 半袖 短形의 방한용 덧자고리로써 男·女 모두 착용하였던 것이며 이는 元代 長襖兒와 구분한 鶴袖襖兒로 되어 高麗末 전래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小串衣는 交袴形 短赤古里로써 元의 유풍으로 짧아졌다는 朝鮮朝 儒學者들의 주장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上衣類위에 덧 입는다는 의미로 “串”(꿰미친)字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제기되었다. (世祖 6年 4月 '好袖即鶴袖虛其胸')

肩尗只是腋尗只와 같은 종류이며 世宗朝 袖隔音과 동일한 것이다. 글뜻대로 옆이 박힌 저고리이며 小串衣보다 격이 낮은 衣料를 사용하였다. 또한 短赤古里形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肩尗只로 구분한 것을 보면 옆트임 赤古里와 비교해서 다소 짧게 만든 平常用 저고리류로 추정되며 腋間等 부분적인 장식이 短赤古里形과 유사함에 따라 다양한 上衣類가 후대에 와서 短赤古里와 唐衣로 二分化 되면서 短赤古里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것은 清衍郡主의 저고리와 당의 유물에서 확인되었다.

赤古里는 樂學軌範의 赤古里와 유사한 형태로써 옆트임 있는 긴 저고리를 의미하며 小赤古里는 안에 빨쳐 입는 속저고리 용으로 보인다. 回粧赤古里는 본 의례에서 처음 나타난 中期의 기록이며 현재의 삼회장 저고리 祖形으로 추정되는 장식인 短赤古里와 차이가 있다. 또한 긴 上衣類인 赤古里 명칭에 포함된 사실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소수민족 사이에 유행되었던 回鶻裝의 영향으로 보아 回族의 생산품인 回錦으로 장식한 저고리를 지칭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점으로 제시하였다.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赤衫은 紵布 紫的羅를 사용하였고 單赤衫이 있는 것을 보아 모두 單衣가 아님이 확인되었으며 小赤衫은 紵布 한종류로 보아 속저고리 용으로 보인

다.

汗衫 紵袍 한종류이며 속적삼 또는 하절용으로 추정된다.

背巨里는 등걸이를 맡한 것이며 본 의궤에 이두식 표기법과 옷의 형태에 따라 衣名이 표기되고 있음이 주목되며 훈민정음의 반포와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長赤古里 長古衣는 草緣匹段으로 된 內備用이며 “雀”的 기록이 추가된 것으로 미루어 長唐衣의 誤記로 보았다.

③ 下衣類에는 赤尗 小赤尗 上赤尗와 褒 凤池 抹袴 등으로 구분하였다. 外備用이 많으며 內備用 치마색은 藍 紫의 주류를 이루며 그 외에 草緣 大紅 白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小赤尗는 모두 白紬로 씨 속치마용이며 上赤尗는 膝欄이 있는 예복용으로 거죽에 입는 것이 확인되었다. 褒와 凤池는 속바지이며 抹袴는 機裙의 표기임이 확인되었다.

仁祖의 襲衣襖는 五禮儀와 동일하며 小斂時 外備用은 散衣 19장으로 帖裏 4單衣 6汗衫 3把持 3裏肚 3의 19件을 平時服制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上服인 袞龍袍 絳紗袍 冕服은 平時用으로 사용하였으며 便服中 赤古里대신 汗衫 裹肚로 기록하였고 單袴 袄袴에 한별로 보아 裹肚는 겹 또는 솜저고리형임이 분명하다.

上衣類 기록에서 赤古里의 명칭은 나타나지 않고 裹肚 汗衫 뿐이다. 汗衫은 속저고리류로 씨 상원사 소장 유물 赤衫은 당시의 汗衫인 것으로 보인다.

仁祖의 裹肚는 有紋匹段 20尺이 소용되었으나 草緣匹段의 표기도 보이고 있다. 帖裏 大紅紗 1匹과 차이를 둔 것이 袍類가 아님이 확인된다. 大斂散衣는 匹段 90으로 하였고 大斂內備用과 散衣는 모두 道袍와 補衣로 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그외에 草緣匹段 唐衣 1件이 大斂內備用에 포함되어 있으며 補空用 王妃衣襖로 추정하였다.

3. 壬亂前 出土服飾 構造

1. 丁應斗 合葬墓(男 1508-1572 女 1509-1580) 38점
2. 碧珍李氏墓(男 ?-1585) 9점
3. 李彥雄 및 子婦 清州韓氏墓(男·女 중종~선조 추정) 28점
4. 洪係江合葬墓(1400-1450년대 추정) 23점
5. 楊川許氏墓(女 1450년대 추정) 9점

6. 金涵墓(男 1568-1598) 6점

이상의 出土服飾은 1991. 12까지 발표된 자료중에서 선별한 총 113점으로 團領5점 褒襪8점 帖裏 17점 直領4점 腋注音 10점 長衣 11점 方領 2점 저고리류 39점 등걸이 1점 치마 9점 속바지류 7점으로 분류되었으며 서로 공통점을 나타내었다. 男服은 團領 褒襪 帖裏 直領 腋注音 長衣 등 袍類가 대부분이며 上衣類는 方領 저고리류 뿐이다. 반대로 女服은 저고리류가 많고 袍는 長衣뿐이며 그외에 치마 속바지로써 문헌내용과 일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衣料中 有紋匹段類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帖裏 褒襪 등에 까지 花紋匹段을 사용하였고 金線段 장식 膝欄치마등 화려한 복식구조이며 이는 燕山君의 持命으로 이루어진 紗 羅 綾緞 보습의 영향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직물의 옻을 따라 바느질된 정교한 봉재법과 넓은 이중깃, 넓은 무의 주름처리, 前短後長의 양식, 소매의 다양화 □形 등 바대 고리식 쌍고름등 부분적인 구조는 실용성과 아울러 과장된 표현방법으로써 이러한 특징들은 당시의 사회가 안정기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형태는 1302年 紫衣 1346年 白紵袍와 동일하여 고려말의 제도가 조선전기에 전승될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여성들의 바느질 기법도 수백년의 전통기법임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여성들의 강한 보수성과 전통력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壬亂中卒한 경우에는 質과 量이 모두 빈약하여 木綿이 대부분임을 볼 때 긴박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때를 고비로 과장된 양식이 간소화 되고 暈衣 中致莫 周衣 등 便短한 종류가 등장하였고 壬亂을 前後한 墓主의 경우 활동기에 따라 복식이 출토되어 壬亂은 朝鮮前期의 服飾構造가 일부 개혁되는 과정으로써 중요한 시점이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각 유형별 복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團 領

白紵布 綿袖交織布 八賓雲紋段으로 된 緞衣이다. 前短後長이며 簡袖와 廣袖가 동시에 나타나며 紫色 쌍고름이 고리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양옆 넓은 무의 주름처리는 褒襪直領과 동일하다. 특히

形 등바대는 공통된 양식이었다. 17C중엽에 이르면 直領과 연합되어 袄團領으로 되고 양옆의 무형태는 上部가 반대로 접혀 뒤에서 고정되고 前後 차이가 없어지며 廣袖, 衣料와 같은 감으로

다소 커진 형태의 고름이 박음질로 연결되는 변화가 나타난다. 明에서는 上向된 무의 형태가 유형되어 高麗樣이라 지칭되기도 하였다. 前短後長의 양식은 樂學軌範의 圖像에서도 확인되었다.

2) 帖 裏

몽고어 텔릭의 차용어로써 朝鮮에서는 토력 明에 시는 帖·貼(Tie)裏(lí)로써 漢字로 텔릭을 표기한 것이며 仁祖朝 天益으로 기록되기 이전에는 모두 帖裏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高麗末 몽고에서 진래된 것으로 朝鮮初에는 王이하庶民에 이르기까지 보편화된 대표적 衫로써 出土服飾中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였다.

이중것이 대부분이며 여름이 깊고 紫色쌍고름이 달렸으며 소매가 모두 半袖이거나 長袖이다. 한사람의 유물에서 簡袖形과 廣袖形이 동시에 나타났는데 紗帖裏는 두리소매형이며 襦·衲帖裏는 簡袖形으로 되어 계절에 따른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衣·裳의 비율이 1:1이며 衣 주름은 0.1~0.2cm의 정도로 정교한 주름이고 고급월단 帖裏중에는 4~5cm의 큰 주름 자국이 일률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시 유행되었던 유풍으로 세련된 복식구조의 일면이 확인되었으며 남자의 복장이 패션에 주도적 역할을 한것으로 보인다.

王亂을 고비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便服袍의 소매 양식은 배래선이 진동선에서 완만한 각선형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衣·裳의 비율은 衣이 점차 길어지는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金德齡의 媞婦 長興任氏의 帖裏는 위의 양식과 유사하며 한쪽 소매만으로 半袖로 되어 있다. 또한 이것은 女墳에서出土된 사실만으로女子의 帖裏 着用을 사실화하였으나 葬俗의 일부로 새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出土帖裏는 모두 직령교임식이나 國初 문헌에는 對衿形의 둑자 帖裏 腰線帖裏 등이 보이며 文孝世子 敗衣中 龍胸背를 加한 기록도 있어 다양한 양식으로 착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둑자 또한 몽고어로써 단추의 의미이며 명칭과 함께 들어온 복식임을 알 수 있다.

八寶雲紋段·紗 蓮花紋紗 水波紋段 白綺布 明袖 등이 사용되었고 男服中 가장 화려하게 되어 있었다. 이는 明代 帖裏가 대단히 화려하였던 사실과도 비교되었다.

3) 褒襠(半袖 直領形)

塔胡 搭胡로도 표기되며 元의 服飾 dobhor hobcásu(搭擇·答笏)와 동음이다. 褒襠는 半臂衣라 하였고 團領帖裏 褒襠는 男服袍일습으로 平時用과 襲衣가 동일한 제도였으며 出土服飾中 團領帖裏 半袖袍가 문헌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褒襠임이 분명하다. 王세자 가례도감의 韶中加文刺는 더그레로써 관 褒襠를 말한 것이다. 帖裏 衣料와 같이 화려한 옷감이며 團領깃을 제외하고 동일한 형태이다. 마찬가지로 王亂을 고비로 소매가 없어지고 넓은 무는 간소화 된다. 간소화된 양식은 對衿形의 戰服과 유사하여 혼란을 가져왔으며 점차 한가지 형태로 통합되어 戰服과 褒襠로 지칭된 것으로 볼 수 있다.

戰服은 衣名에서 알 수 있듯이 武官의 服飾에서 영향받은 것으로 사료되어 갑옷 형태와 비교하였다. 모든 갑옷은 對衿形으로 되어 있고 樂學軌範의 段甲의 경우와 같이 직물로 만들어진 갑옷형태와 유관한 것으로 보았다. 宋代의 豬袖가 武官의 馬上衣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武官의 활동적인 옷차림이 일반에게 유행되는 경우가 나타나므로 다양한 종류의 褒襠類로 발전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褒襠가 衣의 衣名이라 할지라도 半袖形의 옷은 唐代에도 이미 있었던 것으로 前代부터 시행되었던 제도임을 참고해야 한다. 또한 東國大 소장의 白綺袍는 남호의 형태와 유사하여 동종류로 추정하였다.

4) 直 領

소매의 차이가 있을뿐 褒襠과 동일한 제도이다. 이것은 돌립된 男子의 冠服類였으며 王亂을 고비로 점차 單團領의 裏衣로 통합된 양식이다. 넓은 무로 양옆을 빼치개 한 형태를 衣撤直領이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腋注音

腋皺衣 旁褶衣라고도 하였으며 衣料를 비롯하여 소매형태, 길이의 長短등 부분적인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써 당시 가장 보편화된 便服袍임을 알 수 있었다. 四段은 없고 주로 襦·衲衣형태가 많아 방한용으로 널리 착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시 王亂後의 유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6) 長 衣

선행되고 있는 여자 장옷과 동일한 형태이며

당시는 男·女의 便服袍로 착용된 것이다. 長衣는女子의 유일한 袍였으며 王妃도 禮服用 袍이외에 便服袍로 착용하였다. 先行 보고된 자료는 直領袍과 하였으나 長衣임이 분명하다.

女子 長衣는 花紋匹段을 사용한 경우가 많고 小形이며 男子 長衣는 치수가 크며 本綿 明袖가 대부분 이었다. 男子 長衣는 점차 새로운 便服袍의 등장으로 사라지며女子長衣는 쓰개용으로 발전하였다. 王亂中 卒한 金涵의 長衣는 안설이 하나로 약식화 되어 있는데 이는 楊川許氏 長衣와 유사하였으며 또한 저고리의 衣色, 衣料 형태가 동일하였고 이외에도 清州韓氏의 치마와 동일한 衣片이 포함되어 있어 1450年代로 추정된 楊川許氏의 유물에 의문점이 제기되었다.

7) 赤古里類

出土된 모든 저고리는 길이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장식된 형태가 다양한 것이 宣祖妃의 빈전도감의궤 기록과 동일하였다.

A형 50~60cm 전후

B형 60~70cm 전후

C형 70~80cm 전후

A형 저고리는 깃, 셀, 脇間 答袖등을 匹段 金線段 등으로 장식한 현재의 삼회장 저고리와 넓은 꿀이며 저고리중 가장 화려한 것이다. 이는 곧 短赤古里 小襖子 小串衣형으로 추정된다. 화려하게 장식된 형태는 겉저고리로 사용되었을 것인데 대부분의 유물들은 矩形임에도 불구하고 저고리품이 가장 넓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는 다소 긴 형태의 속저고리가 필요하므로 덧 입는다는 의미로 小串衣라고도 지칭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B형 저고리는 옆트임 긴 저고리로써 匹段이나 明袖로 장식없이 만들어진 형태와 깃, 셀, 脇間 길의 下부를 금선단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저고리가 있다. 이 가운데 匹段으로 만든 긴 저고리를 당저고리(당의)로 추정하였고 화려한 장식 저고리를 回粧赤古里로 추정하였으나 唐串衣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례도감의궤는 串衣와 胡袖를 혼돈하여 기록하였으나 숨을 넣어 자색 깃으로 장식된 초대형 저고

리가 당시의 串衣로 추정되며 小串衣와 구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저고리중 깃머리를 깍아준 소위 당코깃의 형태는 한점도 없었으며 王亂中後의 遺物에서 나타나는 형태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여러종류의 저고리들은 短赤古里形과 唐衣形으로 二分化되면서 장식된 저고리는 窪身形으로, 옆트임 저고리는 唐衣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요민속자료 제3호인 光海君妃 中宮柳氏의 저고리를 褙子 저고리라 命名한 것은 재고려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8) 胡袖(方領上衣形)

方領對衿 半袖 矩形으로써 宋代 賴袖(鶴袖)에서 전래된 유습으로 보아 胡袖로 추정하였다. 鶴袖는 元代에서 유행하였던 덧저고리 형이며 고려말 유입된 형태로 본 것이다. 碧珍李氏 유물은 胡袖의 변형으로 보이나 확실치 않다. 몽고복식 중 kúrm-e는 對衿 半袖形의 복식으로써 덧옷으로 입는 방법까지 유사하여 이와 유관한것으로 추정되었다.

9) 背巨里

등걸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현전유물중 텔등걸이(털배자) 藤 등걸이와 유사하다. 褙子의 변형으로 볼 수 있으며 텔배자는 虛胸과 유관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10) 치마

예복용, 평상용이 길이와 장식에서 구분되었다. 평상복은 90cm의 길이로 보아 착장방법이 허리에 있었으며 모두 오른쪽 여밈으로 되어 있었다. 예복용 스란치마는 거죽에 입는 것으로써 상궁의 증언과 반대였으며 왼쪽여밈으로 계급을 구분 한다는 俗說과 반대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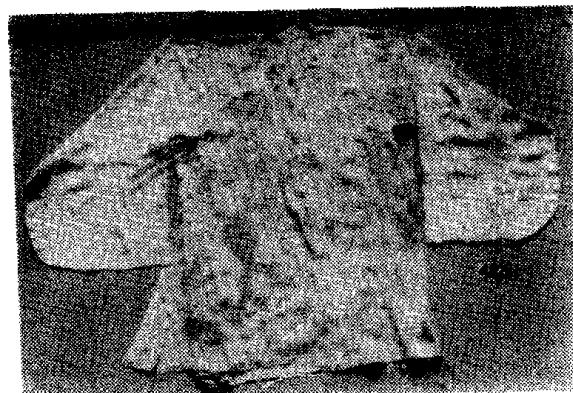
11) 穠(女)

속바지류이며 3가닥으로된 방한용 누비바지는 공통된 양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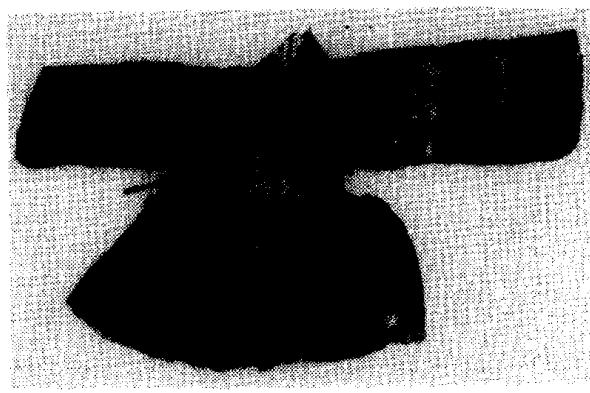
속곳의 형태는 많은 변화가 없었음이 지적되었다.

이상으로 고찰된 유물들은 문헌기록과 일치하였으며 壽衣로 볼 수 있는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들은 당신의 平時服임이 확인 되었다.

1992年 11月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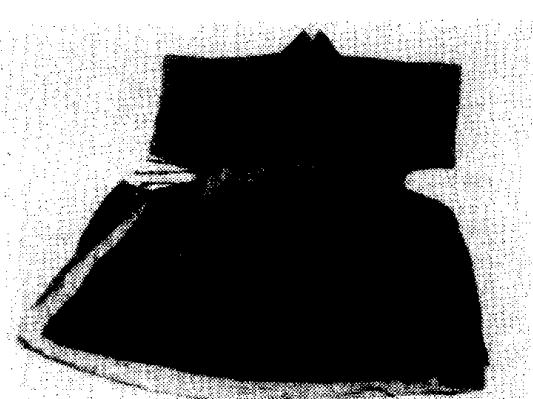
〈사진 1〉 南陽洪氏 團領



〈사진 5〉 廣州李氏 帖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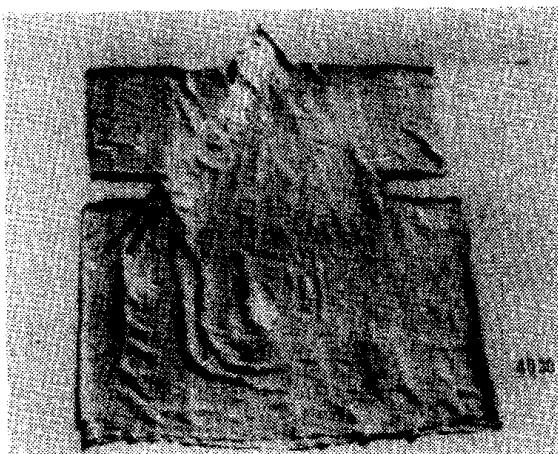
〈사진 2〉 羅州丁氏 團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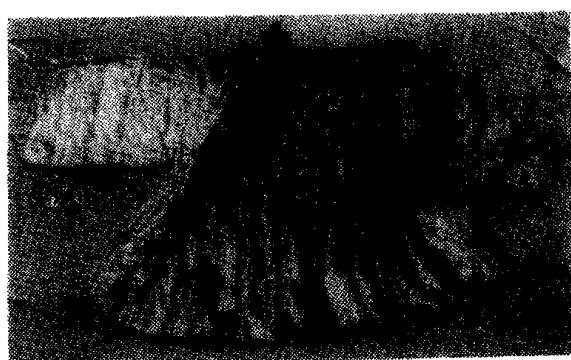
〈사진 6〉 羅州丁氏 褡襠(半袖直領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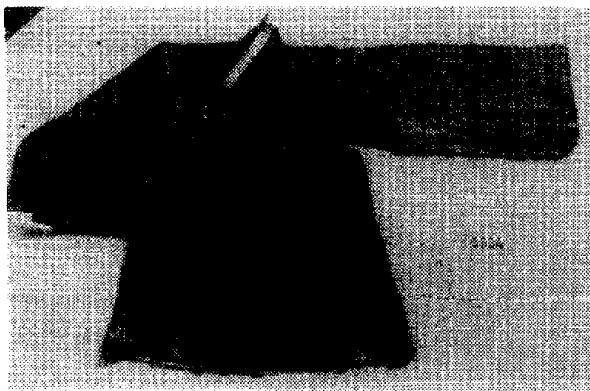
〈사진 3〉 南陽洪氏 帖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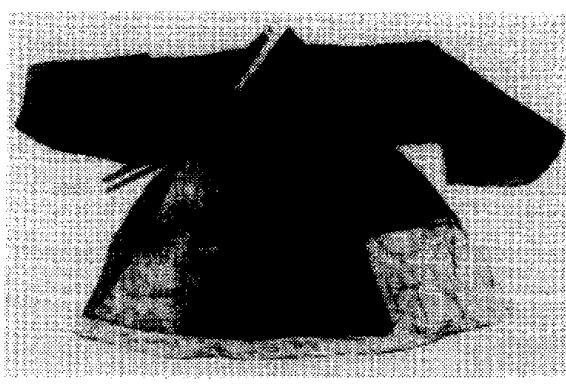
〈사진 7〉 南陽洪氏 褡襠(半袖直領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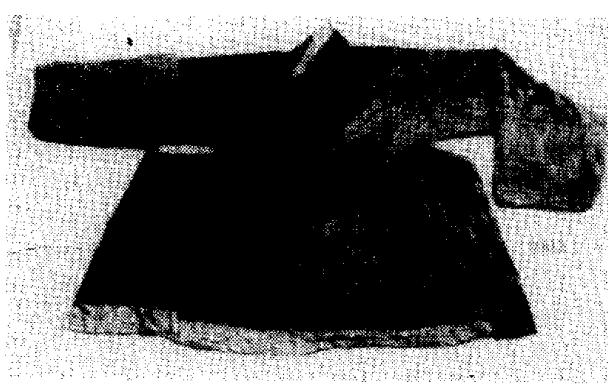
〈사진 4〉 羅州丁氏 帖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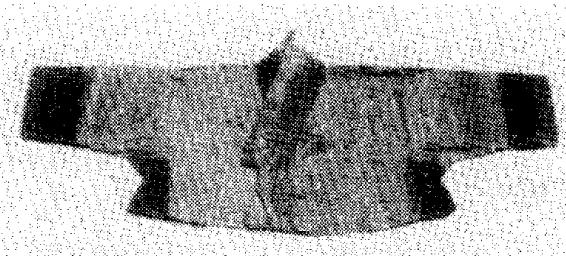
〈사진 8〉 南陽洪氏 直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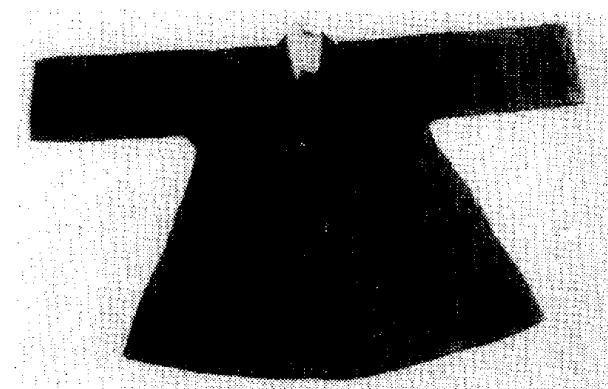
〈사진 12〉 羅州丁氏 脣注音



〈사진 9〉 羅州丁氏 直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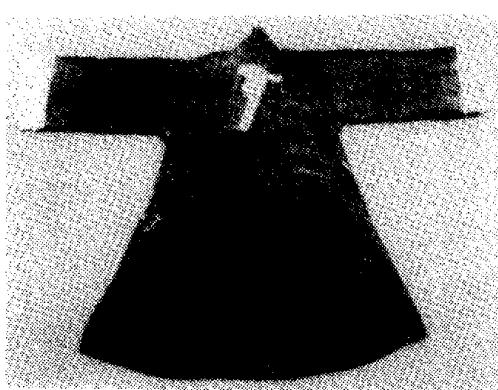
〈사진 13〉 羅州丁氏 配位 저고리(A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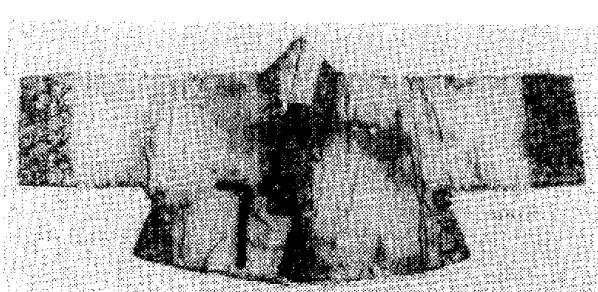
〈사진 10〉 廣州李氏 長衣(男)



〈사진 14〉 羅州丁氏 配位 저고리(A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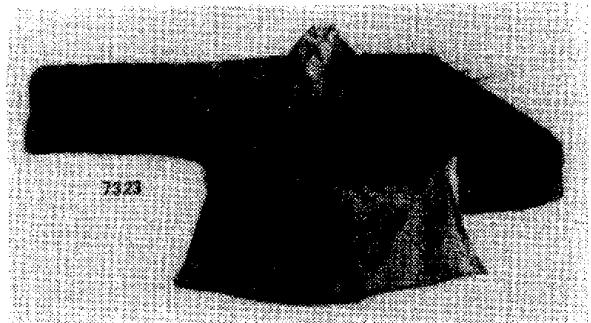
〈사진 11〉 楊川許氏 長衣(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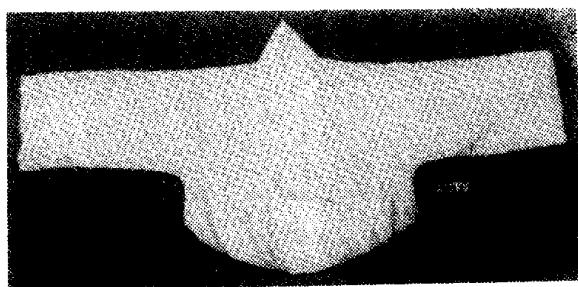
〈사진 15〉 清州韓氏 저고리(A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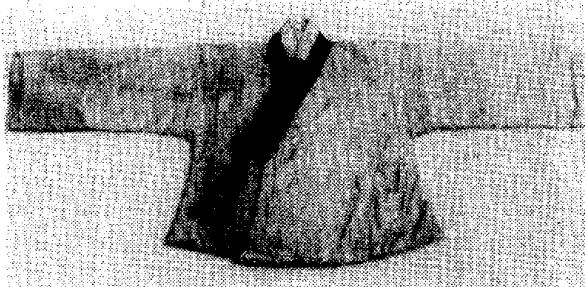
〈사진 16〉 淸州韓氏 저고리(B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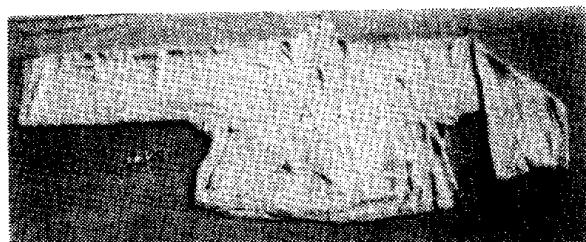
〈사진 20〉 羅州丁氏 配位 저고리(C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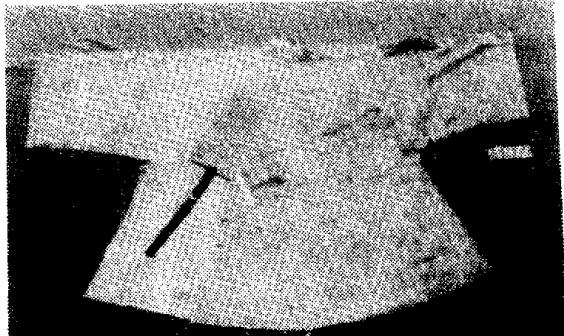
〈사진 17〉 廣州李氏 저고리(B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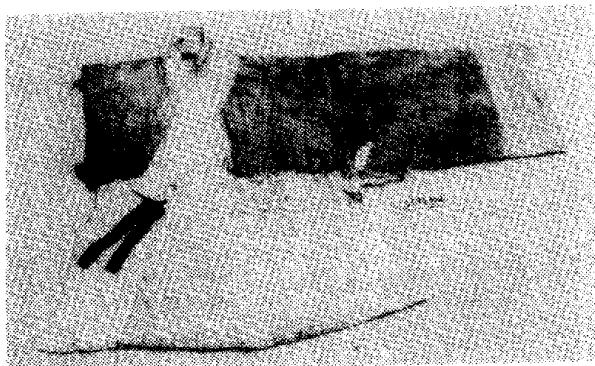
〈사진 21〉 淸州韓氏 저고리(C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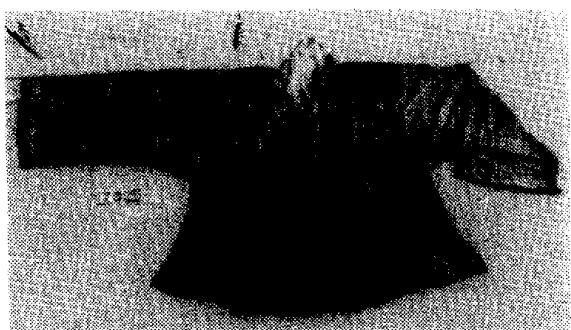
〈사진 18〉 羅州丁氏 저고리(B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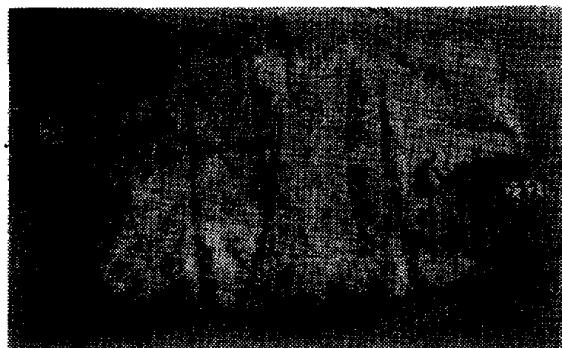
〈사진 22〉 楊州許氏 저고리(C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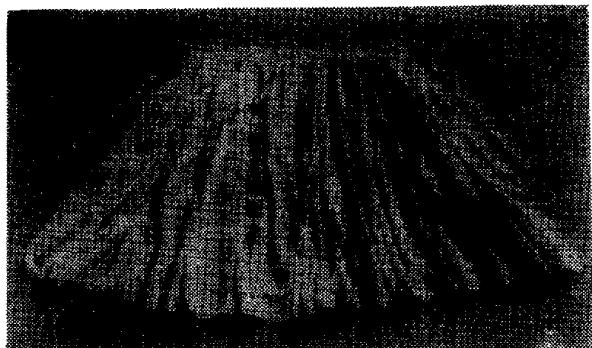
〈사진 19〉 淸州韓氏 저고리(C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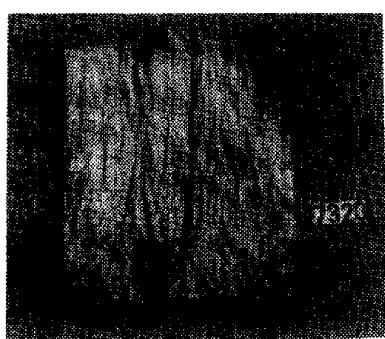
〈사진 23〉 羅州丁氏 配位 저고리(C형)



〈사진 24〉 羅州丁氏 胡袖?(方領上衣形)



〈사진 28〉 南陽洪氏 配位 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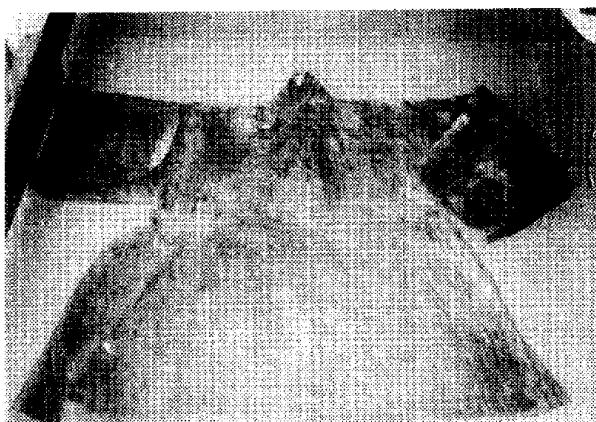
〈사진 25〉 羅州丁氏 配位 背巨里(등걸이)



〈사진 29〉 羅州丁氏 配位 바지(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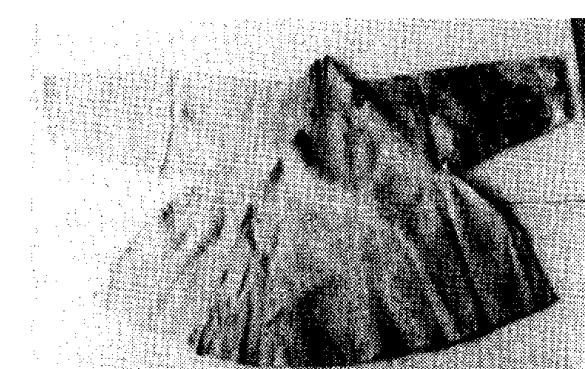
〈사진 26〉 南陽洪氏 配位 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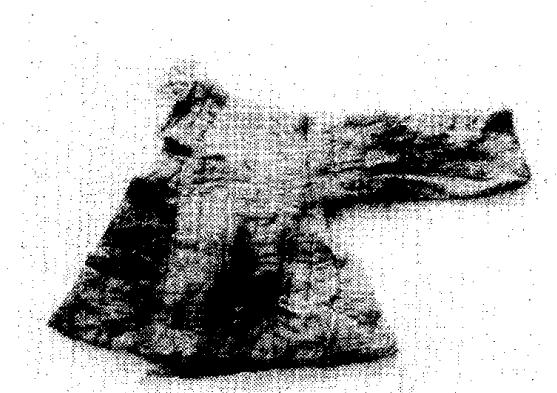
〈사진 30〉 碧珍李氏 脇注音



〈사진 27〉 南陽洪氏 치마



〈사진 31〉 碧珍李氏 脇注音



〈사진 32〉 碧珍李氏 腋注音



〈사진 33〉 碧珍李氏 胡袖?(方領上衣形)



〈사진 34〉 碧珍李氏 配位 바지(女)

IV. 結論

王亂前 出土服飾의 분석결과는 다음의 3가지 특징으로 大別되었다.

① 高麗末의 복식구조가 전승되고 있었다.

이는 곧 元 服飾과 직관된 형태로써 帖裏(텔릭, 텔릭) 둠지 텔릭 褒襪(답홍) 더그래 등을 몽olian으로

써 衣名과 함께 유입되었고 kúrm-e는 胡袖(好袖—鶴袖=豬袖: 同音)와 동일한 기능의 복식이었다. 이러한 복식들은 점차 부분적 변화로 國俗化하여 高麗樣으로 발전되었다. 이외에 前短後長 형태의 袍, 고리식 쌍고름, 이중깃 등은 王亂을 고비로 퇴화되는 朝鮮前期의 특수한 양식이었다.

② 國俗制의 服飾構造가 강화되었다.

赤山里 赤尗 把持등 우리 기본 복식에 고유명칭이 命名되었으며 이외에도 腋注音 腋皺衣 腋尗只 袄隔音 肩尗只 背臣里 등 옷의 형태에 따라 漢字를 차용하여 우리말로 표기된 것은 훈민정음 반포와 유관한 것으로 이와 함께 국초부터 우리의 자주성을 찾으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해 주고 있다. 中國 命服制인 褵衣와 대응하는 長衫을 本朝命服으로 채택한 사실도 이를 반영해 주는 증거가 되었다.

③ 王亂의 영향으로 服飾構造의 변화가 확인되었다.

出土된 女服은 長衣 저고리류 치마 바지로써 이는 王室제도와 동일하였다. 간단한 복식구조로 되어 있으나 上衣類가 다양해서 金線綢 장식이 있는 褶赤青黑 형태는 小串衣 小襖子 등으로 기록되는 등 일관성 없이 표기되어 혼란이 있었다. 견식안것이 모두 복판깃이었으며 남자 저고리형에서 반袒형의 길것이 확인되고 당코깃이라 알려진 것코가 확인 영태는 王亂後의 양식으로 나타났다. 예복용 치마와 평상복 치마는 친이, 衣料에 차이가 났으며 오른쪽 여밈으로 통일되어 있었으나 임란후의 치마 여밈은 좌·우 혼형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도를 따른것인지 가정의 전통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男服은 女服과 달리 袍類가 발달하였고 上衣는 裹肚, 汗衫罷이었다. 團領帖裏 褒襪直領 長衣 腋注音의 공통된 특징은 ①에서 기록된 이외에 대형무주름방법 등이다. 이러한 형태는 王亂을 고비로 악식화 되고 복잡한 형태의 창의 종치막등이 등장하였다. 특히 화려한 花紋匹綢으로 만들어진 帖裏 褒襪 등은 燕山君朝에 許用한 제도의 영향으로 보여 흥미로운 사실로 주목되었으며 당시의 패션은 남성이 주도한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또한 재봉틀보다도 정교하고 섬세한 바느질 방법, 布幅에 따른 과학적인 재단방법, 모든 복식에 어깨를 곱으로 하는등의 합리적인 시접처리, 수세기에 걸쳐 전래된 바느질 기법등에서 조선조 여인들의 뛰어난

사고리과 강한 인내력 보수성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이와 함께 과장된 디자인, 고급四段의 사용은 당시의 사회가 안정속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다.

이상으로 고찰된 내용은 王亂前의 특징으로 공통된 양식이었으나 앞으로 출토될 추가 服飾으로 보완되어 이로써 추정된 부분이 확인되거나 수정부분이 추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중요문서자료로 지정된 유물 가운데 王亂前後로 추정된 第 117號, 118號는 墓主의 生存年代를 王亂中後로 보아야 하며 女子의 帖裏로 지정된 第 109號, 112號도 配位의 補空品으로써 葬俗의 일부로 이해해야 한다. 앞으로 인도의 침리형 복식, 중앙아시아 복식에 나타나는 長衣·腋注音 형태, 라마승의 法衣에 나타나는 이중깃 형태, 브리아트족의 텔릭 등 국제 복, 종교복식과 비교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둔다.

(본고는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이며 상세한 것은 1992. 6. 세종대학교 대학원 “朝鮮前期出土服飾研究”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考文獻

- 〈古書〉
 姜希孟, 申叔丹「國朝五禮儀」
 金副軾, 「三國史記」
 金長生, 「家禮輯覽」
 , 「喪禮備要」

- 「老乞大 朴通事 諺解」
 「蒙語類解」
 懿虛閣 李氏, 「閨閣叢書」
 徐克, 「宜和奉史高麗圖經」
 成倪, 申末平, 柳子光, 「樂學軌範」
 丘圻, 「三才圖會」
 李肯翊, 「燃黎室記述」
 李締, 「四禮便覽」
 李漢, 「星湖僊說」
 朱熹, 「性理大全」
 崔恒, 「經國大典」
 「高麗史」
 「太宗實錄」
 「世宗實錄」
 「文宗實錄」
 「端宗實錄」
 「世祖實錄」
 「睿宗實錄」
 「成宗實錄」
 「燕山君 日記」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英祖實錄」
 「高宗實錄」
 「馬經抄集諺」
 「明史」
 「釋明」
 「禮記」

歷代 嘉禮都監儀軌(王妃·王世子嬪)

昭顯世子都監儀軌	仁祖 5年(1627)	서울大學校奎章閣所藏
仁祖莊烈后嘉禮都監儀軌	仁祖 16年(1638)	서울大學校奎章閣所藏
顯宗明聖后嘉禮都監儀軌	孝宗 2年(1651)	서울大學校奎章閣所藏
肅宗仁敬后嘉禮都監儀軌	顯宗 12年(1671)	서울大學校奎章閣所藏
肅宗仁顯后嘉禮都監	肅宗 7年(1681)	서울大學校奎章閣所藏
景宗端懿后嘉禮都監儀軌	肅宗 22年(1696)	서울大學校奎章閣所藏
肅宗仁元后嘉禮都監儀軌	肅宗 28年(1702)	서울大學校奎章閣所藏
景宗宜懿后嘉禮都監儀軌	肅宗 44年(1718)	서울大學校奎章閣所藏
眞宗孝純后嘉禮都監儀軌	英祖 3年(1727)	서울大學校奎章閣所藏
莊祖獻敬后嘉禮都監儀軌	英祖 20年(1744)	서울大學校奎章閣所藏
英祖貞純后嘉禮都監儀軌	英祖 35年(1759)	서울大學校奎章閣所藏
正祖孝懿后嘉禮廳儀軌	英祖 38年(1762)	서울大學校奎章閣所藏
純祖純元后嘉禮都監儀軌	純祖 2年(1802)	서울大學校奎章閣所藏

文祖神貞后嘉禮都監儀軌	純祖 19年(1819)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憲宗孝顯后嘉禮都監儀軌	憲宗 3年(1837)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憲宗孝定后嘉禮都監儀軌	憲宗 10年(1844)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哲宗哲仁后嘉禮都監儀軌	哲宗 2年(1851)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高宗明成后嘉禮都監儀軌	高宗 3年(1866)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純宗純明后嘉禮都監儀軌	高宗 19年(1882)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純宗純宗妃嘉禮都監儀軌	光武 10年(1906)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歷代 國葬都監儀軌(王·王世子)

宣祖國葬都監一房·二房儀軌	光海君即位(1608)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昭顯世子6葬都監廳儀軌	仁祖 10年(1632)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仁祖國葬都監廳儀軌	孝宗 即位(1649)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孝宗國葬都監廳儀軌	顯宗 即位(1659)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顯宗國葬都監廳儀軌	肅宗 即位(1674)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肅宗國葬都監廳儀軌	景宗 即位(1720)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景宗國葬都監廳儀軌	英祖 即位(1724)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孝章世子禮葬都監儀軌	英祖 5年(1729)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思悼世子禮葬都監廳儀軌	英祖 38年(1762)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英祖國葬都監廳儀軌	正祖 即位(1776)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文孝世子國葬都監廳儀軌	正祖 10年(1786)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正祖國葬都監儀軌	純祖 即位(1800)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孝明世子禮葬都監儀軌	純祖 30年(1830)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純宗大王國葬都監儀軌	憲宗 即位(1834)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憲宗大王國葬都監儀軌	哲宗 即位(1849)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哲宗大王國葬都監儀軌	高宗 即位(1864)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歷代 國葬都監儀軌(王妃·王世子嬪)

仁宣王后國葬都監廳儀軌	顯宗 15年(1674)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仁敬王后國葬都監廳儀軌	肅宗 7年(1681)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明聖王后國葬都監二房儀軌	肅宗 10年(1684)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仁祖莊烈后國葬都監廳儀軌	肅宗 14年(1688)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仁顯王后國葬都監廳儀軌	肅宗 27年(1701)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端懿嬪禮葬都監儀軌	肅宗 44年(1718)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宜懿王后國葬都監儀軌	英祖 6年(1703)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孝純賢嬪禮葬都監儀軌	英祖 27年(1751)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仁元王后國葬都監二房儀軌	英祖 33年(1757)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貞聖王后后國葬都監廳儀軌	英祖 33年(1757)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貞純王后國葬都監虞主所儀軌	純祖 5年(1805)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憲敬惠嬪喪禮都監儀軌	純祖 15年(1815)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孝懿王后國葬都監儀軌	純祖 21年(1821)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顯穆綏嬪葬禮都監儀軌	純祖 22年(1822)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明溫公主房喪禮瞻錄	純祖 32年(1832)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孝顯王后國葬都監儀軌	憲宗 9年(1832)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純元王后國葬都監儀軌	哲宗 8年(1857)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哲人王后國葬都監儀軌	高宗 15年(1878)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神貞王后國葬都監儀軌	高宗 27年(1890)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	高宗 32年(1895)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孝定王后國葬都監儀軌	光武 7年(1903)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純明王后國葬都監儀軌	光武 8年(1904)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慶嬪禮葬都監儀軌	光武 11年(1907)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歷代 殯殿殯宮都監儀軌(王·王世子)

昭顯世子殯宮都監儀軌	仁祖 23年(1645)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仁祖殯殿都監儀軌	孝宗 即位(1649)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孝宗殯殿都監儀軌	孝宗 10年(1659)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顯宗殯殿都監儀軌	肅宗 1年(1675)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肅宗殯殿都監儀軌	景宗 即位(1724)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景宗殯殿都監儀軌	英祖 即位(1724)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眞宗殯宮都監儀軌	英祖 4年(1728)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懿昭世孫殯宮魂宮兩都監儀軌	英祖 28年(1752)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思悼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英祖 38年(1762)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英祖殯殿都監儀軌	正祖 即位(1776)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文孝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正祖 10年(1786)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正宗大王殯殿魂殿都監儀軌	純祖 即位(1800)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孝明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純祖 30年(1830)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純宗大王殯殿魂殿都監儀軌	憲宗 即位(1834)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憲宗大王殯殿魂殿都監儀軌	哲宗 即位(1849)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哲宗大王殯殿魂殿都監儀軌	高宗 即位(1863)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歷代 殯殿殯宮都監儀軌(王妃·王世子殯)

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宣祖 33년(1600)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仁穆王后殯殿都監儀軌	仁祖 10年(1632)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仁宣后殯殿都監儀軌	顯宗 15年(1674)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仁敬王后殯殿都監儀軌	肅宗 6年(1680)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明聖王后殯殿都監儀軌	肅宗 9年(1683)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仁顯王后殯殿都監儀軌	肅宗 27年(1701)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端懿嬪殯殿殯宮都監儀軌	肅宗 44年(1718)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宜懿王后殯殿都監儀軌	英祖 6年(1730)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孝純賢嬪殯宮魂宮兩都監二房儀軌	英祖 27年(1751)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仁元王后殯殿都監儀軌	英祖 33年(1757)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貞聖王后殯殿都監儀軌	英祖 33年(1757)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貞純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純祖 5年(1805)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獻敬惠嬪殯宮都監儀軌	純祖 15年(1815)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孝懿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純祖 21年(1821)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顯穆綏嬪殯宮魂宮都監儀軌	純祖 22年(1822)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孝顯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憲宗 9年(1843)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純元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哲宗 11年(1860)
哲人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高宗 15年(1878)
神貞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高宗 23年(1886)
明成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高宗 32年(1895)
孝定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光武 7年(1903)
純明妃殯殿魂殿都監都廳儀軌	光武 8年(1904)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

一、般 書

- 전등바우博物館編, 「晉州河氏 墓 出土文獻과出土服飾調查報告書」, 전등바우박물관출판부, 1991
 高光林, 「韓國의 冠服」, 和成社, 1990.
 高漢玉外, 「中國歷史織染繡圖錄」, 商務印書館香港分館外, 1986.
 光山金氏 文元公派 宗中編, 「沙溪·慎獨齊全書(上)」, 白山學會 資料院, 1985.
 國立民俗博物館編, 「韓國喪葬禮」, 1990.
 國史編纂委員會編, 「韓國史 12」, 1978.
 國書刊行會編, 「蒙古語大辭典」, 昭和四十六年.
 權桂淳, 「우리 옷 變遷과 縫製」, 修學社, 1965.
 金東旭, 「壬亂·丙亂 前後 安東金氏 一括遺衣」, 忠北大博物館, 1977.
 , 「重要民俗資料調查報告書 75號—金德遠公一家遺物」, 文化財管理局.
 , 「增補 韓國服飾史 研究」, 亞細亞文化社, 1973.
 , “李朝妓女史 序說” 아세아여성연구 5집, 1966.
 金東旭·柳頌玉, 「重要民俗資料調查報告書 80號」, 1979.
 金斗憲, 「五服制度의 研究」.
 金庠基, 「高麗時代史」, 東國文化史, 1961.
 金淑堂, 「朝鮮縫製全書」, 活文化, 1925.
 金英淑, 「朝鮮王朝末期 王室服飾」, 民族文化文庫刊行會, 1987.
 , 「韓國服飾史資料選集」, 教文社, 1982.
 金用淑, 「宮中撥記의 研究」, 鄉土서울 제18호.
 , 「朝鮮朝 宮中風俗研究」上古 高麗編, 一志社, 1987.
 檀國大 民俗博物館編, 「廣州李氏 壽衣 特別展」, 1981.
 , 「第2回 壽衣 特別展」, 1982.

- _____, 「韓國服飾 第6號」, 1988.
 _____, 「韓國服飾 第7號」, 1989.
 _____, 「韓國服飾 第8號」, 1990.
 _____, 「韓國服飾 第9號」, 1991.
 리춘득, 「조선여어획사」, 연변대학 출판사, 1987.
 文化財管理局編, 「武寧王陵」, 1973.
 , 「文化財 大觀 重要民俗資料編(下)」,
 , 「重要民俗資料 調查報告書」, 1986.
 , 「指定文化財 目錄」, 1991.
 閔吉子, “遺物中心으로 본 織物工藝”,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22冊, 1991.
 朴京子, 「福州南宋黃昇墓 出土服飾研究」, 生活文化研究 第三輯, 1989.
 朴京子, 林純英, 「韓國衣裳構成」, 修學社, 1975.
 朴炳善, 「朝鮮朝의 儀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朴聖實·高富子, 「高陽 陵谷 茂院 出土 羅州丁氏 月幹公派 出土遺物 小考」, 檀國大 民俗博物館, 韓國服飾 9號, 1991.
 , 「城南出土 東萊鄭氏 出土遺物에 관한 小考」, 檀國大 民俗博物館, 韓國服飾 7號, 1989.
 , 「驪州出土 東萊鄭氏 出土遺物 小考」, 檀國大 民俗博物館, 韓國服飾 8號, 1990.
 朴聖實, 「午川 小考」, 服飾 14號, 韓國服飾學會, 1990.
 , 「殯殿都監 儀軌에 나타난 服飾研究(1)」, 服飾 16號, 1991.
 , 「翟衣制度의 變遷研究」, 服飾 第9號, 1985.
 , 「親蠶禮 및 親蠶服에 관한 研究」, 韓國服飾 第5號, 1987.
 法制處, 「經國大典」, 一志社, 1992.
 上海辭書出版社編, 「中國風俗辭典」, 1990.

- 石宙善, 「民俗資料 調査報告書」, 文化財管理局, 1986.
- , 「우리나라 옷」, 光文出版社, 1961.
- , 「重要民俗資料 지정자료 광해군 내외분 옷」, 文化財管理局, 1965.
- , 「韓國服飾史」, 寶普齊, 1971.
- 成東·鍾少昇, 「中國古代兵器圖集」, 解放軍出版社, 1990.
- 小川安郎, 「服飾變遷의 原則」
- 孫敬子·仕榮子, 「한·양재」, 수도여자사범대학 출판부, 1976.
- 孫敬子, 「韓國·蒙古服飾의 相關性 研究(Ⅱ)」, 服飾 16號 1991.
- 孫敬子·金英淑, 「韓國服飾史資料選集」Ⅰ
_____, 「韓國服飾史資料選集」Ⅱ
- 孫貞圭, 「朝鮮裁縫」, 三中堂, 1948.
- 宋德胤, 「喪葬儀觀」, 中國青年出版社, 1991.
-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商務印書館, 1981.
- 吳淑生·田白秉, 「中國染織史」, 台北 南天書局.
- 溫陽民俗博物館編, 「安東金氏墳墓發掘調查報告書」, 1989.
- 劉頌玉, 「朝鮮時代 儀軌圖의 服飾研究」, 索의대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6.
- , 「朝鮮王朝宮中儀軌 服飾」, 修學社, 1991.
- 柳喜鄉, 「上院寺木彫文殊童子坐像 腹藏遺物」.
, 「1302年 阿彌陀佛腹藏物의 調査研究」, 溫陽民俗博物館, 1991.
- , 「韓國服飾史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1975.
- 李康七·李美娜, 「韓國의 甲冑」, 문화공보부 문화재 보호사, 1987.
- 李康七, 「韓國名人肖像大鑑」, 探求堂, 1972.
- 李京子, 「韓國服飾史論」, 一志社, 1983.
- 李範穆, 「韓國中世禮思想研究」, 一潮閣, 1991.
- 이소단, 「재봉교분」, 高麗文化社, 1948.
- 李龍範, 「中世滿洲 蒙古史의 研究」, 同和出版公社, 1988.
- 李熙昇外, 「韓國人名大辭典」, 新丘文化史, 1980.
- 仕榮子, 「五臺山上院寺 文殊菩薩像 腹藏遺物에 對한 小考」, 文化財 第10號, 1978.
- , 「韓國宗教服飾」, 亞細亞文化社, 1990.
- 張三植, 「大漢韓辭典」, 博文出版社, 1964.
- 張哲秀, 「葬制와 副葬品」, 安東金氏墳墓 發掘調查 報告書 溫陽民俗博物館, 1989.
- , 「中國儀禮가 韓國 儀禮 生活에 미친 영향」
- 정희준, 「朝鮮古語辭典」, 동방문화사 1949.
- 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研究」, 一志社, 1988.
-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中國戒刷出版社, 1984.
- 中央日報社編, 「韓國의 美 20」
- 忠北大 博物官編, 「壬亂前後 出土服飾 및 喪禮」, 1983.
- , 「出土遺衣 및 近代服飾 論考」, 1987.
- , 「出土遺衣 및 近代服飾 論考(Ⅱ)」, 1988.
- 湖北省 荊州地區 博物館編, 「江陵馬山 一號楚墓」, 文物出版社, 1985.
- 洪妹瓊·茂瓊, 「朝鮮衣服 婚姻制度의 研究」, 乙酉文化社, 1948.
- 華梅, 「中國服裝史」天津人民美術出版社, 1989.
- Suk Yoon-Hee, 「SYMBOLIC and DECORATIVE MOTIFS OF KOREAN SILK」, IL JI SA, 1988.